

## 영화 자막 번역에서 어휘 선택 연구 - 추상·보통 명사 중심으로 -

박 윤 철  
(동국대)

### 1. 서론

오늘날 현대인들은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영상을 활용하여 메시지 전달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한다. 그리고 영상은 어느 때보다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얻게 되었고, 전달 체계나 전송 방식도 더 쉬워졌다. 이러한 영상을 통한 의미 전달 중, 영화와 같은 영상물은 주로 자막을<sup>1)</sup> 통해 배우들의 대화를 문자로 전달한다. 그리고 자막에 나타나는 문자 표현들은 사람들에게 모국어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준다.

---

1) 영상물은 자막과 더빙, 보이스-오버(voice-over)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자막은 문자 형태로 전달하고, 더빙은 성우들의 목소리를 통해 배우들의 음조,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전달하며, 보이스-오버는 원문 목소리를 작게 하고 성우의 목소리를 크게 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신미현 16).

영화는 다른 영상물들처럼 문자, 음성, 화면을 통해 원문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영상 번역가는 원문 내용과 의미들을 충실히 전달하고자 이러한 채널들을 활용하여 적절한 어휘나 표현들로 자막에 나타낸다. 영화 자막에 나타나는 어휘들이나 표현들은 줄거리 흐름 또는 시대적 경향을 반영해 준다. 하지만, 영화의 도착어 자막에 등재되는 어휘나 용어들은 원문과 다르게 전달되거나 유사 의미로 대체 방식에 의해 전달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한 영화 도착어 자막에 나타나는 낱말들의 어휘 선택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지적 차원에서 다의성을 지닌 어휘로부터 특정 의미가 선택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의성을 지닌 어휘로부터 어휘 선택 고찰은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안고 있지만, 명사에 한정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명사 중에서도 보통·추상 명사에 국한시켜 로쉬(59-65, 테일러 60 재인용)의 기본 수준 가설(basic level category)과 레이코프(91-117)의 방사상 범주 모델(radial category model)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또한 어떤 낱말의 다의적 의미들 중, 어떤 개체 요소가 중심 의미를 이루고, 주변 의미와 어떤 방식에 의해 도착어 자막에 등재되는지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찰에 활용되는 자막 자료는 영-한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가까운 것들(Something's gotta give) 2004』, 『사랑의 레지피(No reservation) 2007』이다. 두 영화는 멜로 드라마 장르로서 교양 있는 어휘들을 주로 사용할 것으로 고려하여 다의적 어휘 자질로부터 어떤 자질이 선택되는지 살펴보기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원문의 명사 어휘가 도착어에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래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가까운 것들』 자막에서 살펴보겠다.



- (1) 아래는 영화 속 병원 의사가 해리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막 내용이다.

ST	TT
(해리) I actually saw her naked last night.	어젯밤엔 홀랑 벗은 걸 봤다구.
(의사) That doesn't sound so uptight.	꼭 막힌 건 아니네요.
(해리) It was <u>an accident</u> .	<u>사고</u> 였다구.
(해리) She thought I was asleep. I thought her room was the kitchen.	내가 그 여자 방을 주방으로 착각했어.
(의사) You know what Freud said, "There are no <u>accidents</u> ."	프로이트 말이 '실수란 없다'고 했죠.
(해리) Trust me.	진짜야.

위 예문에 원문 발화 “accident” 요소가 도착어 자막에 “사고” 또는 “실수” 로 전달되었다. 해리의 “accident” 발화 요소는 “사고” 로 어휘 사전적 의미를 글자 그대로 전달되었지만, 의사 발화에서는 “실수” 로 전달되었다. 프로이드라는<sup>2)</sup>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한 표현에서 “accidents” 발화 요소는 하나의 격언처럼 전달된다.

하지만, 레이코프와 로쉬의 가설을 통해 관찰해 볼 때, “accidents” 라는 명사 낱말은 unexpected happening, unintended happening, fortune, irregular formation 등과 같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의적 의미들은 불행한 일이나 사건들을 기본 수준 범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 중, ‘unexpected happening’ 의미가 사전에 첫 번째로 등재되어 있어 중심 의미로 가정된다(최태욱·윤강구 3-4).

먼저, 해리의 대화에 “accident” 발화 요소는 중심 의미와 유사한 “사고” 로 도착어에 번역되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의사 대화에 “accident” 발화 요소는 도착어에 “실수(mistake)” 낱말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전달은 “accident” 발화 요소의 중심 의미인, ‘unexpected happening’ 의미와 “실수” 의

2) “there are no accidents(= 실수란 없다)” 라는 표현은 루스 베리(Ruth Berry)가 적은 『Sigmund Freud』 책의 제 3장 제목에 나오는 글귀이다. 이근영(2003)이 위 원본을 번역하여 현재 시중에 출간되고 있음.

미가 서로 다른 텍스트에서 공유하는 유사 의미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 가능하다. 다시 말해, ‘unexpected happening’ 의미는 ‘뜻밖의 사고’나 ‘말썽을 일으키는 나쁜 짓’을 뜻한다. 한편, “실수” 의미는 ‘부주의로 잘못된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각각 다른 두 텍스트 내에서 두 어휘는 불행한 사건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기본 수준 범주로부터 유사 의미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도착어 자막에 “실수” 번역은 영화 속의 배우들의 사건 상황, 이전 발화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원문의 “accident” 와 유사 의미 영역에 기인되어 선택되었다. 이처럼 자막에 나타나는 명사 어휘들은 본질적으로 어휘 사전적 의미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의미 영역으로부터 선택된다. 그리고 이 어휘는 본질적으로 지닌 원형성 중심 의미로부터 유사 의미 영역에서 서로 관계 맺는 어휘로 나타난다.

## 2. 중심 의미의 경계

출발어가 도착어로 전이 될 때, 전이되는 표현들은 형식적(formal)<sup>3)</sup>, 역동적 등가성(dynamic equivalence)<sup>4)</sup>을 지닌 표현으로 전달된다(나이더 159). 도착어에 나타난 표현들은 원문 표현과 유사하거나 각색 또는 변조(modulation), 모사(calque), 차용(borrowing) 등과 같이 변환(shift)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러 변환 과정을 통해 선택된 도착어 낱말들은 본질적으로 또는 맥락 상황이나 주위 환

3) 형식적 등가성은 형태와 내용에 있어 그 메시지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도착어 메시지는 출발어의 다른 요소들을 가능한 한 원문과 가까이 일치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나이더 159).

(Formal equivalence focus on the message its lf, in both form and content.... One is concerned that the message in the receptor language should match as closely as possible the different elements in source language).

4) 수용자와 메시지 사이에 관계는 원문의 메시지와 수용자 사이에 존재했던 것과 상당히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나이더 159). 역동적 등가성은 표현의 자연스러움에 목표를 두고 있다.

(Dynamic equivalence is based on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receptor and message should be substantially the same as that which existed between the original receptors and the message...The message aims at complete naturalness of expression).

경에 적절한 낱말이나 표현으로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선택된 표현들과 낱말들은 도착어 텍스트의 용인성(acceptability)을 점검받게 된다. 곽성희(26)는 텍스트 상에서 용인성은 글이 텍스트 타입에 적절한 결속 구조와 결속성을 갖추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어떤 낱말의 용인성은 이전 발화와 맥락을 통해 결속 구조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영화처럼 도착어 자막에 선택된 낱말들은 장면이나 음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주어진 여러 상황에 정보성이 낮고 높은 낱말들은 장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텍스트에 용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용인성을 토대로 다의성을 지닌 어휘로부터 선택된 의미는 그 의미의 의미 영역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substitution)나 차용과 같은 다른 어휘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다. 도착어에 나타난 명사 낱말의 의미는 원문 중심 의미인지 또는 파생된 주변 의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유사 의미로 어의 확장 관계를 설명한 레이코프나 색깔 범주를 통해 원형성을 규명한 로쉬도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의 경계를 단정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 분명한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도 불구하고 어휘론적 입장에서 낱말의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경계를 설정하고자 한다. 배도용(83)은 ‘입’, ‘머리’ 등과 같은 어휘들의 의미 확장을 연구하면서 중심 의미를 아래처럼 설명하였다.

중심 의미: 일반적으로 의미의 확장은 중심 의미에서 주변 의미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중심 의미는 인지적으로 원형적이고 논리적으로 지시물의 근원을 이루는 실제적인 것이며, 문맥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의미를 말한다. (배도용 83)

위의 주장대로 낱말의 중심 의미는 어떤 지시 대상의 고정된 힘을 가진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태옥·윤강구(4-5)도 일본어의 동사 파생 명사 연구로부터 파생 명사의 중심 의미는 사전에 뜻풀이된 내용 중,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의미 내용을 그 어휘 항목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중심 의미)로 보았다. 게다가 한상남(3) 역시, 국어의 다의어 연구에서 사전에 등재된 다의적 어휘의 의미들 가운데 첫 번째 의미는 중심 의미가 된다고 보았고, 그 밖의 의미

들을 주변 의미로 파악하였다.

이외에도 중심 의미 연구에 관해 어휘론 학자들은 핵심 단어를 특정한 속성보다 총칭적 속성을 갖고 있는 개념으로 수용하였다(원명옥 옮김 56). 따라서 핵심 범주의 어휘는 비대칭적 구조로 상위어, 하위어 관계를 연관 지으며 분류하였다. 특히, 상위어는 하위어를 계층 구조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핵심 의미는 일정한 범위의 문자 텍스트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원명옥 옮김 64).

이와 같이 핵심 의미, 즉 중심 의미는 어떤 낱말의 근본적 원형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원형성은 다시 유사 공유 속성을 지닌 주변 의미들로 확장해간다. 중심 의미로부터 확장은 가장 가까이 있는 의미 범주로 전개된다(테일러 108). 또한 상위어와 하위어로 조직된 계층적 수직 구조(테일러 47)로 의미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어휘의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살펴보았다. 사실, 이러한 구분은 아직도 모호성을 지닌 면도 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단호히 그 구분을 사전에 의존하여 분리하지만, 코퍼스 언어학(corpus linguistics)을 통한 구분도 두 관계의 경계에 미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바블 외 2인 5). 이처럼 두 의미의 구분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본 연구는 어휘론적 입장을 수용하여 영화 자막 번역에 나타난 명사 낱말의 어휘 선택 현상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 3. 연구 범위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영화 자막에서의 어휘 선택 고찰은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자막 시간이나 공간 제약, 영상 시각 기호 내용들의 간접적 의미 전달, 두 언어 사이의 통사적 구조 차이는 어휘 선택 과정을 분석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도착어 자막 번역에는 용인성을 살린 어휘 표현들이 자주 나타난다. 전현주(196)는 번역 텍스트의 내적 용인성으로 첨가, 누락, 탈자, 오식 등에 주목하였고, 어휘 번역에서 개념어와 핵심어의 관련된 어휘 번역에 중점을 두었다. 영화와 같은 장르에서 번역된 어휘 의미는 자막

텍스트에 장면이나 음성과 같은 부차적 요소에 의해 핵심에서 벗어난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막 텍스트에서 용인성은 여러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명사들의 용례를 인지 범주 범위 안에서 분석하였다.

두 편의 영화 자막을 살펴본 결과, 일부 발화 명사 요소들은 영상 번역가의 의도나 언어 능력에 달려 있지만, 중심 의미와 의미 연쇄성을 맺기 어려운 어휘들도 발견되었다. 그러한 예를 아래에 제시한다.

(2)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자막

ST	TT
a. I don't think I've ever had this <u>effect</u> on a woman before.	여자의 이런 <u>반응</u> 은 처음이요.
b. What's with all the young girls? What's the <u>story</u> there?	젊은 사람만 사귀는 <u>이유</u> 는 뭐죠?

영화 『사랑의 레시피』 자막

ST	TT
c. If I was nervous, I should just picture <u>the audience</u> in their underwear.	긴장되면 <u>고객들이</u> 벗은 모습을 상상해라.
d. You know I never reveal my <u>sources</u> .	<u>사업 기밀</u> 을 밝힐 수 없죠.

위 예문 (2)는 원문 어휘의 중심 의미로부터 벗어난 의미로 번역된 사례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a)에서 “effect” 발화 요소가 “반응”으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번역은 이전 발화 맥락으로부터 고려된 어휘일 수도 있다. 그러나 발화 내에서 (2a)의 “effect” 발화 요소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인상, 느낌, 영향, 결과 등의 의미로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번역 형태는 번역가의 기술 (description) 능력에 기인된다고 본다. 또한, (2b)의 “story” 발화 요소는 “이유”로 번역되었고, (2c)의 “audience” 발화 요소는 “고객”, (2d)의 “source”는 “사업 기밀”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발화 요소들의 번역은 영화 자막의 글자 수 또는 공간 제약이나 시각 기호 내용, 이전 발화 맥락의 영향에 의해 이처럼 번역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휘 사전적 중심 의미로부터 벗어난 이러한 번역 형태는 인지적 관점에서 어휘 선택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 별개의 사항이므로 고찰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 4. 다의성 배경 이론

낱말의 다의성을 관찰함에 있어, 자연 언어는 단의적 구조보다는 다의적 구조를 가진다(테일러 99). 그리고 단의적 구조와 다의적 구조의 구별은 전통적 구분으로 설명된다. 단의성은 하나의 의미를 갖는 데 반해, 다의성은 관련성을 지닌 둘 이상의 의미들이 연합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bird’ 낱말은 다른 종류의 피조물들(펭귄, 타조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관계는 단일 원형 의미에 유사성으로 다른 범주의 구성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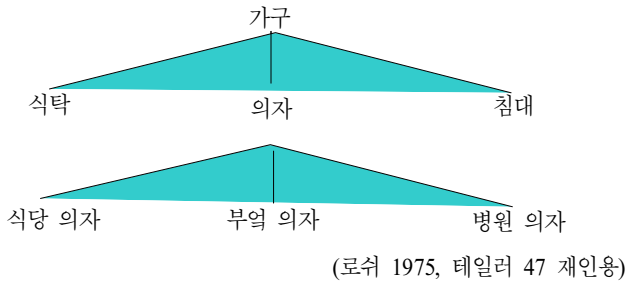
따라서 로쉬(1975, 테일러 46 재인용)는 원형성 의미를 지닌 범주와 주변 범주는 의미 유사성 관계로 성립된다고 보았다. 그는 원형 범주에 기본 수준 범주(basic level category)를 설정하고, 이 범주는 실제 세계에 있는 의미 속성들과 서로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가 주장한 기본 수준 범주는 아래 처럼 설정된다.

기본 수준 범주(basic level category)

- a. maximize the number of attributes shared by members of the category;  
(범주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속성들의 수를 극대화시켜라)
- b. minimize the number of the attributes shared with numbers of other categories.  
(다른 범주들의 수를 공유한 속성들의 수를 최소화 시켜라)  
(로쉬 1975, 테일러 51 재인용)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두 속성들을 지닌 개체들은 원형성과 유사성에 의해 범주 구성 자격을 부여받는다. 어떤 개체가 원형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범주 내에서 그 개체 지위는 더욱 중심적이다. 그리고 원형성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개체 지위는 원형성이 약하던지, 비원형적 범주가 된다. 그러므로 원형 중심 범주와 가까이 있는 범주들은 유사성이라는 의미 영역 관계를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 영역은 개별적 유사 속성을 지니면서 서로 유사 의미 범주들을 구성한다. 그러한 예로, 가구 낱말을 가지고 아래 범주화 축 도식을 통해 살펴보자.



위 도식에서 가구라는 낱말이 가진 의미 범주는 식탁, 의자, 침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는 상위 범주로서 이러한 범주들의 의미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범주 구성원들 중, 의자는 가구에 대해 하위 범주에 속하며, 의자는 침대나 식탁과 유사 의미의 공통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의자는 동일한 범주 수준에서 부엌 의자, 식당 의자, 병원 의자와 공통 의미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부엌 의자, 식당 의자, 병원 의자들은 의자라는 상위 범주와 그리고 동일한 범주 수준 구성원들과 유사 의미 속성을 지니지만, 또한 서로 구별되는 각각의 개별적 의미 속성들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기본 수준 범주는 개체들 간의 몇몇 요소들을 공유할 수 있지만, 모든 구성 요소들의 개체 속성들을 범주화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본 수준 범주는 중심이 되는 범주와 주변 범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호 유사 속성을 인지하게 된다. 이러한 로쉬의 범주 속성에 대해 레이코프(17)는 방사상 범주 모델(radial category model)을 통해 그 의미 속성들을 설명하였다. 방사상 범주는 어떤 낱말들의 여러 의미들이 서로 의미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의미 관련성에 관해서는 비트겐슈타인(70)의 ‘게임’ 어휘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휘 항목 ‘게임’은 카드 게임, 보드 게임, 체스 게임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이러한 항목들을 ‘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항목들의 본질적 속성과 유사성 또는 관련성을 통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그는 이러한 의미 유사성을 가족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이라고 불렀고 (비트겐슈타인 31-33), 이는 곧, 의미 관련성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의미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은 유사한 의미 속성들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유사성이나 관련성은 어떤 낱말의 여러 의미들을 하나의 범주로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레이코프(91-117)의 방사상 범주는 비트겐슈타인(31-33)의 가족 유사성 범주에 해당된다. 가족 유사성은 중심 의미가 의미 연쇄(meaning chain)를 이루며 확장해 가는 모습을 지닌다. 그러한 예를 아래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의미 연쇄 구조

A ---> B ---> C ---> D etc.

(테일러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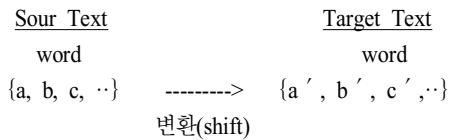
위의 예시는 먼저, 동일한 범주 내에서 발생함을 전제로 한다. 의미 A는 어떤 공유된 속성을 의미 유사성에 의해 B와 연결된다. 그리고 의미 B는 다시 의미 C로 확장되어 간다. 의미 C는 또한 의미 D로 동일한 방식으로 의미 연쇄를 이루며 확장된다. 하지만, 이러한 전개 과정에서 의미 A와 D가 서로 유사 의미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의미 A가 가진 자질들은 인접한 의미 B와 공유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의미 연쇄 사슬을 만들 수 있지만, 의미 C, D와는 인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의미 B와 C가 의미 A와 D 사이에 개입되어 상호 의미 관련성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미 A가 의미 C, D와 같은 개별적 의미를 가진 다의적 범주임을 보여주는 근거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의미 A는 의미 B, C, D에 이르기까지 의미 연쇄성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낱말이 문장 또는 발화 내에서 다의성을 가질 때 그 낱말의 의미는 중심 의미와 의미 연쇄를 이루며 확장된다. 또한 별개의 의미로 나타나는 낱말은 결국 중심 의미와 맥락이나 발화 상황에 따라 여러 의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방사상 범주 모델과 기본 수준 범주 가설을 통해 영화 자막에서 나타나는 어휘 선택은 어떤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지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 5. 자막에서 낱말의 어휘 선택 고찰

영화 자막은 일반 문헌보다 자막 시간과 공간 제약을 많이 받는다. 그러므로 자막에 등재되는 용어들은 함축적 표현이나 명시적 표현들을 종종 목격한다(이다현 35-42). 이러한 언어적 표현들은 압축, 생략과 같은 현상을 통해 도착어 자막 길이를 줄이는 효과를 발생시킨다(제프리 74). 게다가, 축소 번역되는 도착어 자막은 원문 낱말 의미들을 영화 장면 내의 사건 상황, 시간과 공간 제약 그리고 배우들의 발화 상황들을 고려한 문자 형태이다(박윤철 50). 따라서 도착어 자막에 표현되는 낱말들은 명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착어 자막에 선택된 어휘들은 사전적 의미보다는 발화 맥락 상황에 맞게 등재된다. 등재된 낱말들은 원문의 중심 의미로부터 도착어에 의미 유사성을 지닌 표현으로 시간, 공간, 추상, 은유적 범주로 확장된다(이기동 46).

이와 같이 도착어 자막에 나타나는 어휘들은 발화 맥락 상황에 적절하게 선택된 어휘들이다. 선택된 어휘들은 도착어 청중들에게 가독성을 높이는 표현이나 의미 유사성을 띤 표현으로 전달되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간단히 도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처럼 제시할 수 있다.



위 도식에서 볼 수 있듯이, 원문에 있는 어떤 어휘의 {a, b, c, ...} 와 같은 여러 의미들은 도착어에 {a', b', c', ...} 처럼 원문과 유사 의미 영역으로부터 선택된다. 그러므로 도착어 자막에 나타나는 어휘들은 원문 텍스트에 주어진 어휘의 기본 수준 범주 영역을 근거로 충실히 전달되며, 발화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 원문과 유사하거나 공통된 의미 영역에 해당되는 어휘들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의미 관계는 원문에서 지닌 중심 의미의 기본 수준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휘로 선택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해 영화 『사랑의 레시피』 자막을 통해 살펴보겠다.



(3) 다음은 여주인공 케이트가 아래층에 살고 있는 선에게 그의 데이트 신청에 거절하는 대화 내용을 보여주는 자막이다.

ST	TT
(케이트) Oh, thanks. Right.	고마워.
(선) You're welcome.	천만에.
(케이트) So, what's the problem with having <u>rules</u> ?	원칙대로 사는 게 뭐가 나빠요?
(케이트) It's not as if I were <sup>5)</sup> controlling of anything.	통제하려는 게 아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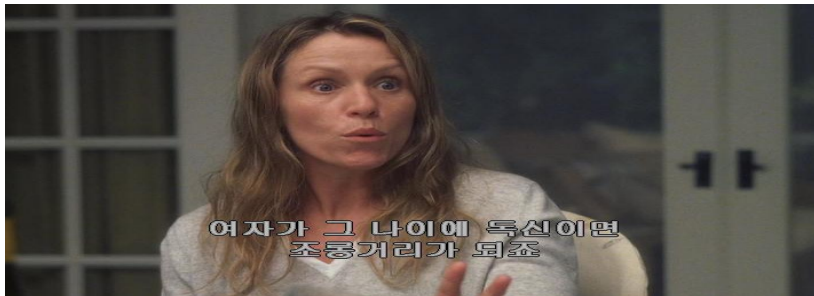
위 자막에서 원문에 나타난 케이트의 “rules” 발화 요소가 도착어에는 “원칙(=principle)”으로 전달되었다. 원문의 “rules” 명사는 principle(원칙), regulation(규제), government(통치), control(통제), law(법) 등의 여러 개체 구성원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개체 구성원들은 원형성을 가지는 의미 즉, ‘따르고 지키는 의미’를 기본 수준 범주로 간주된다. 기본 수준 범주 내에서 사전에 맨 먼저 등재된 ‘principle(원칙)’ 의미가 중심 의미를 차지한다. 이 중심 의미는 기본 수준 범주 내의 다른 개체 구성 요소들과 의미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으며, 방사상 형태로 regulation, government, control, law 등의 의미들과 의미 연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속성과 함께, 위 예문에 “rules” 발화 요소는 도착어에 “원칙”

5) 위 예문은 본래 “as if I'm controlling of anything”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비문법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as if I were controlling of anything”으로 수정하였음.

이라는 중심 의미를 전달한 모습을 보여준다. 원문의 “rules” 발화 요소는 다의적 의미 속성을 지닌 여러 개별적 구성 요소들 중, 발화 맥락이나 상황에 맞게 원문의 ‘principle’ 의미와 “원칙” 의미가 서로 다른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의미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이 도착어의 어휘는 원문의 중심 의미와 도착어 사이에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어의 영역에서 선택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하지만, 아래 예문은 유사 의미 영역으로부터 선택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 (4) 아래는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에서 주인공 조와 그녀의 이모, 해리가 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식사 도중 이모가 해리에게 여자의 삶에 관한 주제로 대화하는 자막이다.

ST	TT
(이모) Fantastic!	대단해요!
(이모) Never married, which, as we know, if you were a woman, would be a curse.	여자가 그 나이에 독신이면 <u>조롱거리</u> 이죠.
(이모) You'd be an old maid, a spinster.	노처녀 운운하면서.

위 예문은 조의 이모가 해리에게 노처녀에 대한 자기 관점을 주장하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모의 “curse” 발화 요소가 “조롱거리(= ridicule)”로 번역되었다. 원문의 “curse” 명사는 profane(모독), obscene(외설), evil(사악), damn(저주) 등의 다의적 구성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의적 구성원들

중, ‘profane’의 의미가 맨 먼저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중심 의미로 가정된다. 원문의 “curse” 발화 의미는 개체 구성원들 사이에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의미를 기본 수준 범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 수준 범주 내에서 “curse” 발화 요소의 중심 의미인, ‘profane’ 의미가 도착어에 글자 그대로 전달되었을 경우는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문의 “curse” 발화 요소가 도착어 자막에 “조롱거리”로 번역되었다. 원문의 “curse” 발화 요소가 “조롱거리”로 대응되는 것은 중심 의미인 ‘profane’이 가지는 의미와 “조롱거리” 의미가 서로 다른 텍스트에서 공유하는 유사 의미 영역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profane’은 남에게 수치감을 주는 의미를 나타내고, “조롱거리”는 남의 비웃음이나 놀림을 당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curse” 발화 요소가 도착어에 전달될 때, 영화 속 이모의 노처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발화 맥락(또는 기본 수준 범주)로부터 “조롱거리”와 유사 의미 영역을 토대로 어휘 선택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 예문에서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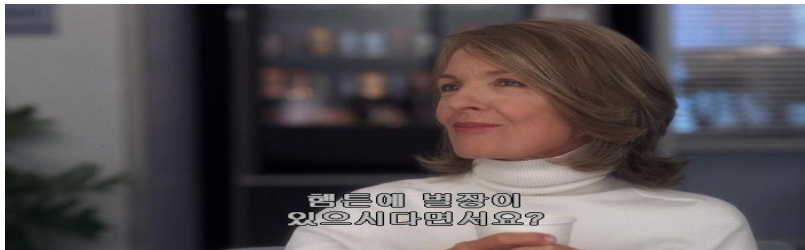


- (5) 아래는 조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조와 함께 부엌에서 해리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자막 내용이다.

ST	TT
(어머니) What, his car doesn't have headlights?	밤엔 왜 못가?
(어머니) Wait a minute. I have no right to get these <u>nuts</u> .	잠깐, 내가 <u>난리</u> 칠 권리는 없지.
(어머니) I am sorry.	미안해.

위 예문에 조 어머니 대화의 “nuts” 발화 요소가 “난리” 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전달은 조 어머니가 딸의 행동에 대한 불만(높은 해리와 데이트 한 행위)을 표시한 이전 발화 맥락에<sup>6)</sup>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원문의 “nuts” 발화 요소는 walnut(견과), seeded fruit(씨앗 열매), kernel(핵심), foolish(어리석은 짓) 등과 같은 개체 구성원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개체 구성 요소들은 딱딱하고 단단한 대상을 기본 수준 범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nuts”의 여러 개체 구성원들 중, ‘walnut’ 의미가 사전에 첫 번째 항목으로 등재되어 있어 중심 의미로 가정할 수 있다.

껍질이 단단한 열매를 나타내는 ‘walnut’ 의미는 실제 세계의 지시물을 가리킨다. 공간적 범주에 속하는 이 의미는 ‘seeded fruit’, ‘kernel’과 같은 딱딱하고 작은 열매라는 점에서 기본 수준 범주의 유사 의미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 의미들은 ‘foolish’처럼 추상적 범주 영역으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확장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원문의 “nuts” 발화 요소는 도착어에 글자 그대로 전달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walnut(견과)’이라는 공간적 영역의 의미로부터 ‘foolish(어리석은 짓)’이라는 추상적 범주의 확장 의미도 전달 가능하다. 그러므로 원문의 “nuts” 발화 요소가 도착어 “난리(confusion)” 로 대응될 수 있었던 것은 구성 요소 일부인 ‘foolish’ 의미와 어리석은 행위를 나타내는 “난리” 와 서로 다른 텍스트에서 공유하는 유사 의미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도 위와 유사한 현상으로 이전 발화 맥락을 통해 원문 어휘의 기본 수준 범주로부터 유사 의미 영역에 해당되는 발화 요소를 선택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6) 이전 발화 맥락 내용을 제시하기에 지면상 제약으로 나타내지 않았음.

(6) 아래는 조의 어머니와 해리 담당 의사와 해리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사는 조의 어머니, 케이트가 극작가라는 사실을 알고 대화하는 자막 내용이다.

ST	TT
(의사) In med school you learn what keeps you up without making you nuts.	의대 시절 녹차가 정신 차리는 데 좋다는 걸 배웠죠.
(의사) You know I heard you had a <u>house</u> in the Hamptons.	햄튼에 별장이 있으시다면서요.
(의사) I am a big fan. I've seen every play you've.	저 왕팬이에요. 쓰신 작품은 다 봤어요.

위 예문은 의사가 케이트의 직업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의사 대화 중, “house” 라는 발화 요소가 “별장 (villa)” 으로 전달되었다. 이러한 전달은 케이트가 극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호감을 전제로 번역가가 의도적으로 적절한 어휘를 선택했다고 고려된다.

하지만, 원문의 “house” 라는 어휘는 building for family(주택), inn(여인숙), habitation(서식지), family(가정) 등의 여러 구성원들을 지닌 다의어이다. 이러한 여러 구성 요소들 중, 원문의 “house” 발화 요소가 도착어에 번역된 “별장” 이라는 어휘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과 별장 모두 서로 다른 텍스트에서 거주 장소를 나타내는 공통된 의미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즉, “house” 발화 요소는 일반 주택 의미를 중심 의미로 고려되지만, 우아한 저택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별장” 번역은 원문 발화의 “Hampton” 이라는 지역 이름의 발화 요소와 의미 관련성을 맺고, “Hampton” 이라는 지역에서의 주택은 곧, 일반 주택과 구별되는 “별장”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원문의 “house” 발화 요소는 “Hampton” 과 관련해 도착어에 “별장” 으로 어휘 선택되었다. 다음 예문은 원문 메시지가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사 의미로 전달한 사례를 보여준다.



(7) 아래는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가까운 것들』 자막에서 부엌에서 여 주인공 케이트가 동생 데이브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 놓으려는 의도로 대화를 하는 자막이다.

ST	TT
(케이트) So you're not ready to show me any new pages.	아직 한 줄도 못 썼지?
(케이트) Dave.	데이브.
(동생) I'm not putting any <u>pressure</u> on you.	부담 주는 거 아냐.
(케이트) I'm just asking.	그냥 묻는 거지.

위 예문은 케이트가 동생 데이브의 글 작성에 대해 걱정스런 마음으로 발화하고 있다. 두 사람의 대화 중, 케이트의 “pressure” 발화 요소가 도착어 자막에 “부담”으로 번역되었다.

원문에 있는 “pressure” 낱말은 physical force exerted on a surface(압력), the act of pressing(압박), coercion(강제), tension(긴장) 등의 여러 구성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 중, ‘physical force exerted on a surface’는 사전에 맨 먼저 등재되어 있어 중심 의미로 간주된다. 그리고 “pressure” 낱말은 여러 구성 요소들과 함께 어떤 대상이나 사람에게 힘을 가하는 것을 기본 수준 범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원문의 “pressure” 발화 요소가 도착어에 글자 그대로 충실히 전달될 경우, 한국어에는 ‘압력’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착어 자막에 선택된 어휘는 발화 맥락이나 여러 주변 여건을 고려해 “부담”으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누르는 힘’이라는 기본 수준 범주를 근거로 확장된 주변 의미를 반영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어에 “부담”이라는 의미는

의무나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가중, 부하, 중하, 짐 등의 의미들과 유사성을 가진다. 따라서 “부담”은 기본 수준 범주에 해당하는 ‘누르는 힘’ 의미와 공유할 수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원문의 ‘압력’ 의미가 도착어의 “부담”으로 대응되는 것은 서로 다른 텍스트에서 어떤 대상에 힘을 가하는 기본 수준 범주를 토대로 어휘 선택되었다. 그러므로 추상적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 관계에 “부담”이라는 어휘는 ‘압력’ 의미와 유사 의미 영역을 공유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낱말의 중심 의미를 바탕으로 원문 자막의 명사 어휘는 도착어 자막에도 유사한 의미 영역을 토대로 어휘 선택된다. 다음은 『사랑의 레시피』 자막에서 수직 계층 구조를 통해 전달되는 사례를 살펴보겠다.



(8) 아래는 여주인공 케이트가 교통사고로 죽은 언니의 딸 조를 위로하는 대화 내용이다.

ST	TT
(케이트) Hello, Zoe.	안녕, 조.
(케이트) I'm sorry. Mac, the lady of the house ain't	미안하지만, 주인 없어.
home and besides...we mailed your refund <u>check</u>	돈은 환불
last week.	해줬을 텐데.
(케이트) I cooked us something tasty.	맛있는 거 가져왔어.

위 예문의 케이트 발화에 “check” 발화 요소가 “돈”으로 전달되었다. 케이트 대화 중, 원문의 “check” 발화 요소는 inspection(조사), stoppage(저지), test(시험),

mark(표시), bill(전표), money order(송금환) 등을 나타내는 여러 개체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개체 구성 요소들 중, ‘inspection’ 의미가 사전에 맨 먼저 나타나므로 중심 의미로 간주된다. 그리고 ‘inspection’ 의미는 stoppage로부터 bill, money order에 이르기까지 확장된 의미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원문의 “check” 발화 요소가 도착어에 글자 그대로 전달될 경우 ‘조사’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check” 발화 요소는 “돈”으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check” 낱말의 확장된 여러 구성 요소들 중, ‘bill’ 또는 ‘money order’ 의미들과 유사 의미 영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말해, 원문의 “check” 발화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bill’ 또는 ‘money order’ 의미들은 “돈”이라는 발화 요소와 물물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 유사 의미를 공유한다. 그리고 도착어에 “돈”이라는 포괄적 개념은 그 하위 범주로 수표, 지폐, 동전 등을 하위 범주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문의 “check” 발화 요소는 발화 맥락이나 상황에 적합하게 “돈”이라는 어휘와 각각의 텍스트에서 유사 의미 영역을 토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착어 자막에 나타난 발화들은 원문의 어휘가 가진 범주에 벗어나지 않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미들은 서로 다른 텍스트에서 유사 의미 영역으로부터 연관성을 맺으며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형식들은 영화 자막에서 이전 발화나 영화 장면 상황에 어울리는 어휘로 대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 6. 결론

지금까지 영화 자막에서 나타난 원문의 다의적 속성을 지닌 명사가 도착어 자막에 어떻게 어휘 선택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원문의 명사 어휘와 도착어 어휘 사이에 의미 간격을 분석해 보았다. 도착어 자막에 나타난 명사 어휘는 원문의 어휘가 가지는 의미 영역 범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어휘로 선택되었다. 하지만, 몇몇 도착어 자막의 어휘들은 번역가의 개인적 언어 능력이나 표현 능력에 의해 원문 어휘와 연관성을 찾기 힘든 어휘들도 있었다. 이러한 어휘 선택의 관점들은 본 연구에서 배제시켰고, 원문의 어휘가 지닌 기본 수준 범주

로부터 도착어에 등재되는 낱말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관찰하였다.

어휘는 단어성도 지니지만, 다의적 의미를 가지는 항목들도 있다. 다의어는 발화 환경이나 자막 시간과 공간 또는 시각 기호 내용에 의해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편의 영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가까운 것들』, 『사랑의 레시피』 자막을 토대로 도착어 낱말의 어휘 선택을 관찰하였다. 특히, 명사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본 어휘 선택은 로쉬의 기본 수준 범주와 레이코프의 방사상 범주 모델을 근거로 설명 가능 하였다.

영화 자막 원문에 주어진 일부 명사 어휘들은 보통 역동적 등가를 이루는 번역으로 전달되지만, 자막의 특성을 고려하여 함축 또는 명시 의미로 전달되었다. 또한 몇몇 어휘들은 원문 명사 어휘가 가진 중심 의미로부터 유사 의미 관계로 도착어 자막에 전달되었다. 특히, “rules” 어휘가 “원칙”, “pressure”가 “부담”, “house”가 “별장”으로 전달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게다가 어떤 어휘는 기본 범주 수준 내에서 수직 계층 구조 형식을 통해 선택되었다. 그러한 예로, “check” 발화 요소가 “돈”으로 번역된 사실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도착어 자막에 선택되는 어휘들은 발화 맥락이나 그 어휘들이 지닌 의미 속성을 통해 원형 범주에서 이탈하지 않는 의미 영역으로 부터 자막에 등재되었다. 따라서 유사 의미 또는 수직 계층 어의 관계로 나타난 도착어 어휘들은 원문 텍스트의 발화 의미들을 충실히 전달하려는 번역가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곽성희. 2006. 『번역 입문』. 서울: 이지북스.
- 박윤철. 2008. 「영상 번역에서 축역 현상」. 동국대 대학원 박사 논문.
- 배도용. 2002. 「우리말 ‘입’의 의미 확장 연구」. 배달말 31권. 배달말 학회.
- 신미현. 2003. 「불·한 영화자막에 있어 화행을 고려한 축역의 중요성」. 전북대 대학원 석사 논문.

- 원명옥 옮김. 1998. 『어휘론의 이론과 응용』. 서울: 한국 문화사. (Carter R. 1998. *Vocabulary: Applied Linguistic Perspectives(2nd)*. London: Routledge).
- 이대현. 2006. 「영상 번역을 위한 함축성 연구」. 세종대 대학원 박사 논문.
- 이근영 옮김. 2003. 『30분에 읽는 프로이트』. 서울: 중앙 M & B. (Zuth Berry. 2003. *Sigmund Freud*. U.K: Penguins Books).
- 이기동. 1976. 「전치사적 부사 *off*의 의미 분석과 그 응용」. 응용 언어학 제 8권 2호. 서울대 어학연구소.
- 전현주. 2006. 「번역 텍스트의 용인성: 번역 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번역학 연구』. 7권 2호.
- 최태욱·윤강구. 2002. 「중심 의미에 의한 일본어 동사 파생 명사의 의미」. 일본 학회 22권. 한국 일본어 교육학회.
- 한상남. 1992. 「현대 국어의 다의어 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Biber, D. et als. 1998. *Corpus linguistics: Investigating language structure and use*. U.K: Cambridge UP.
- Geoffrey, T. Harris. & Peter, Fawcett. 1996. *On Translation French Literature and Film*. Amsterdam: Rodopi.
- Lakoff, G. 1990. *Woman, Fire, and Dangerous Things*. Chicago and London: Chicago UP Ltd.
- Nida, 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 Perego, E. 2003. Evidence of Explicitation Subtitling: Towards a Categorization. *Across Language and Cultures* 4.
- Taylor, J. 1989. *Linguistic Categorization*. Oxford: Claredon P.
- Wittgenstein, L. 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New York: Macmillian.

영화 자료

- 원작. 2007. 『*No Resevoration*』. 번역: 『사랑의 레시피』. WannerBrothers. Com.
- 원작. 2004. 『*Something's gotta give*』. 번역: 『사랑할 때 버려야 할 가까운 것들』. WannerBrothers. Com.

[Abstract]

**Lexical Selection in Film Subtitling**  
**— Focusing on Abstract and Common Nouns —**

Park, Yooncheol  
(Dongguk University)

Nowadays we often experience various ways of transmitting our messages on screen. A medium like film transfers them by moving images, subtitling, and sound. Thus film subtitling is restricted due to temporal and spatial variables because of the physical devices. By these factors, the length of source text is lessened as the contractive and explicit forms in target text.

Also much of the languages used in subtitling are highly have polysemous and ambiguous meaning factors other than written word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case of lexical selection in subtitling, a few of lexicons in source text transfer similar meanings within the prototype category. This is reasonable that Rosh's (1975) basic level category and Lakoff's (1987) radial category model, in terms of cognitive perspectives, can illustrate well the attributes of lexical categories. At first, Rosh argued that the more numbers of category members there were, the more attributes of them were maximized. It means that some members of the category share other similar meaning attributes with the core meaning but, otherwise some can involve attributes to be separated from them. Lakoff insisted that some attributes made a chain with the core meanings, and the different meanings have common similar features with them.

Through these fac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xical selection phenomena in subtitling of the American-into-Korean film, *No reservation* (2007) and *Something gotta give* (2004). The actually chosen meanings in noun lexicons

converted into similar or closer meanings with the prototype meaning, and they transferred to the target text with the appropriate lexical forms. Moreover, lexical selection by translators depends on their competence but, a few words were influenced by utterance contexts, visual code contents, and temporal and spatial restrictions. Most noun words were chosen as similar meanings in the utterance context.

According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show the selection of any specific word and its result, noun words in target text were captioned with similar meaning forms within the prototype category.

▶ Key Words: subtitling, lexical selection, polysemy, similar meaning, meaning chain, basic level category, core meaning

박윤철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영어영문학과 강사

lingular@hanmail.net

관심분야: 영화번역, 자막번역

논문투고일: 2008년 5월 6일

심사완료일: 2008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7일